

국가별 동향



중국

제5회 중국 계란 산업 컨퍼런스 성료



제5회 중국 계란산업컨퍼런스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푸젠성에서 농업농촌부 육계 및 산란 시설 연구실, Hebei 농업대학 등이 주최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. 이번 컨퍼런스는 허베이농업대학 등이 주최하여 400개 이상의 국내외 전시업체는 물론 국내외 계란 산업 체인의 전문 대표자 약 4,000명을 초대하여

산업 정보 교환 및 신기술, 신제품 및 기업 이미지를 홍보하는 자리가 되었다. 계란산업컨퍼런스는 앞으로도 계란 산업을 위한 3차원적이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구축하고, 생산, 공급 및 마케팅 시스템의 조정 및 통합을 촉진하고, 신기술, 신모델을 전시할 계획을 밝혔다. 한국에서도 계란관련 대표자가 초청되어 한국 계란산업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. [chaina.com]



일본

산란계 사육성적 발표

일본 지바현축산연구소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41~420일령 동안 8계 계군을 대상으로 산란계 성적을 조사, 발표하였다. 대상은 일본에서 사육하는 일반 산란계로 개방계사 케이지 2수 사육으로 하였으며 주요 평균성적은 표와 같다. [鶏鳴新聞]

생존율 (%)	산란수 (개)	평균난중 (g)	50% 산란		산란율		사료	
			일령(일)	체중(g)	H.D(%)	H.H(%)	섭취량(g/일)	요구율
96.8	262	60.8	147	1,692	93.4	92.3	112.1	1.97



북한

김정일 위원장, 황해북도 황주에 건립된 관천양계농장 시찰



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 양과 함께 지난 1월 7일 서부 황해북도 황주에 새로 건립된 관천양계농장 시찰에 나섰다. 최첨단 시설의 산란계 케이지 시설과 난좌에 포장된 계란 제품 및 육계 가공공장 시스템을 살펴보는 사진이 언론에 노출됐다. [북한 조선중앙통신]

러시아

계란 시장에 돌풍, 당국 개입



러시아 정부가 올해 들어 가격이 40% 이상 급등한 국내 계란 시장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긴급 대책을 내놴다.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2024년 첫 6개월 동안 러시아 계란 수입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. 또한 최근 몇 달 동안 가격 정책이 정당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4개의 주요 계란 제조업체에 대한 독점 금지 조사를 시작했다.

크라스노다르에 본사를 둔 가금류 농장 Novorosiisk의 이사인 Vladimir Mkhitarian은 지난 2년 동안 러시아 계란 농장들이 '적자 수익성'으로 운영을 유지해야 하는 소리 없이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. 농장은 -3.6%의 한계 수준으로 2022년을 마감했다. 2023년 첫 9개월 동안에는 -17%에 도달했다. Mkhitarian은 일부 농장에서는 운영을 축소하고 다른 농장에서는 생산량을 줄였다고 말했다. 수익성을 레드존으로 몰아넣은 이유 중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엄격한 수입 의존도다. 미키타리안은 서방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제한되는 현재 백신과 사료 첨가제를 해외에서 구입해야 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말했다. [POULTRY WORLD] 양계